

# 마음을 알고 쓰느냐 모르고 쓰느냐

## 한마음 깨치면 부처

황벽스님이 배후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부처님과 일체 중생은 한마음일 뿐, 다른 어떤 법도 없다. 이 마음은 본래부터 생긴 적도 없고, 없어진 적도 없다. 푸르지도 않고, 누렇지도 않다. 형체도 없고, 모양도 없다. 있고 없음에 속하지도 않는다. 새롭거나 낡았다고 헤아릴 수도 없다. 길거나 짧지도 않다. 크거나 작지도 않다. 모든 한계와 계량 그리고 이름과 언어를 넘어서 있다. 모든 자취와 상대성도 초월한다. 당채 그대로일 뿐, 한 생각이 일어나면 곧 어긋난다.

오직 한 마음일 뿐, 더 이상 다시는 다른 법이 없다! 이것이 바로 양변을 떠난 중도인 것이다. 양변이 있으면 중도도 있을 텐데, 양변을 떠나고 중간이라고 할 것도 없는 것, 중도를 올바르게 깨달으면 생사를 해탈하는 데도 걸림이 없다. 이 도리를 제대로 깨달았다면, 중도의 이치를 밝혔다고 말할 수 있다. 황벽스님이 '이 마음은 본래부터 생긴 적도 없고, 없어진 적도 없다.' 고 한 부분도 역시 중도를 설명한 것이다.

생각이란 움직이면 곧 어긋나 버린다. 즉 '이 마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고 확인하기 위해 한 생각 움직이면, 마음에 그림자가 일렁거리서 본심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뜻이다. 그러나 사실 마음은 없어진 것이 아니고, 마음에 미혹의 그림자가 덮여서 무명에 떨어진 것뿐이다. 마음이란 무명에 덮였든 그렇지 않든, 깨달은 사람이나 깨닫지 못한 사람이나 상관없이, 누구나 똑같이 가지고 쓰는 것이다. 그러나 알고 쓰느냐 모르고 쓰느냐에 따라, 그 차이는 매우 크다.

## 수불 스님의 전심법오 선해 (3)



한 생각 돌이켜 미혹의 그림자를 제거할 근거를 바탕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만큼 즐겁고 편안한 것은 없을 것이다. 근본 자리에서의 즐거움이란, 때때로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는 세속적인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다. 마음을 알고 인연 따라 순리에 어긋나지 않는 입장에서 시간을 보내야지, 항상 세속적인 즐거움에 빠져 지낸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행동은 없을 것이다.

이것은 마치 허공과 같아서 끝이 없으며, 가히 재어볼 수도 없다.

사람의 마음이란 종잡을 수가 없어서 어디서 어디까지 인지, 또 무엇이 마음인지 그 한계를 설명할 수가 없다. 무한정이라 할 수도 없고, 한계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마음이란 어떤 것일까? 스스로 깨닫기 전에는 결코 알 수 없는 이 마음! 한 생각 돌이키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인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치에만 머물고 집착하면서 스스로 마음을 안다고 착각하니, 이는 곧 자신을 속이는 바보 같은 행위다.

이 한마음 그대로 부처일 뿐, 부처와 중생이 새삼 다를

바가 없다.

'이 한 마음 그대로가 부처다.' 이 말은 이치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 자기의 마음자리가 불(佛)이라는 것을 깨닫는 돈오(頓悟)의 입장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황벽스님이 이런 직언을 들려주는 배경에는 이미 배후가 돈오를 체험한 입장이 전제로 한 것이다. 그래서 근본당체를 그대로 드러내 보였다. 배후는 규봉종필과의 인연으로 이미 선법에 상당한 지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직 깨달음을 체험하지 못하다가 황벽스님과의 첫 만남에서 안목이 바뀌었던 것이다. 결국 그는 황벽스님께 귀의하여 자신의 공부법을 드러내고 가르침을 구했다. 우리는 황벽스님의 귀한 법문이 이런 상황에서 설해했다는 것을 이해하고 읽어야 할 것이다.

중생은 다만 모양에 집착하여 밖으로 구하므로, 구할수록 더 잃는다. 부처로 하여금 부처를 찾게 하고 마음으로 마음을 붙잡는다면, 겁(怖)이 지나고 몸이 다할지라도 바라는 바를 얻을 수 없다.

대부분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형상에 집착하고 분별한다. 그 사람의 진실한 내면을 보지 못하고, 이러쿵저러쿵 작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그런 어리석은 마음으로 사람에게 다가가면 갈수록, 진인(眞人)은 나와 점점 더 멀어질 것이다. 부처를 찾는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다. 한데 부처로 하여금 다시 부처를 구하려고 애쓰게 한다면, 이 어찌 허망한 일이 아닐 수 있겠는가? 또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찾는 어리석은 것을 하면, 세월이 다하고 이 몸이 다해도 끝내 얻지 못할 것이다. **범어사 주지**

##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㉓



## 내 이제 무슨 물건으로 담무갈보살에게 공양해야 할까?

〈소품(小品) 반야바라밀경〉

돈을 금기시 하는 불교

돈과 성(性)! 결국 이것인가, 싶다. 서양의 현대를 공부하면 할수록 느끼게 되는 것은 마르크스와 프로이트의 힘이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을 파헤쳤고, 프로이트는 인간의 심리 안에 잠자고 있는 어두운 심연(深淵)을 해명해 냈다.

이 두 사람을 빼고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는 없게 되었다. 적어도 서양에서는 그렇다. 그런 그들이 내놓은 답이 '돈과 성'이다. 마르크스는 돈을 제외하고서는 인간을 말할 수 없다고 했고, 프로이트는 성을 제외하고서는 인간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여기서 나는 이러한 두 가지 가치를 공히 중시한 힌두교를 생각한다. 힌두교에서 설정한 인간 삶의 목표 네 가지 중

절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관점야말로 불교가 넘어서고자 했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가치관이야말로 비불교적이라 말해야 한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중적'임을 면치 못하는 것 같다. 속으로는 돈을 생각할 정도로 많이 하면서도, 겉으로는 돈 생각을 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그 래야 교양 있는 사람으로 대접받는 풍토(風土) 탓일까? 어차피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실상 어떤 경제 체제가 되더라도, '돈'이 중심이 되는 한 자본주의의 수박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돈 이야기, 물질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 돈 이야기가 곧 탐욕이야기라 생각하는 것은 단견(短見)이다.

돈은 공양의 도구

여기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고민하는 한 청춘의 이야기를 들여보라. 살타 파룬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구도자였다. 경전은, 아예 보살이라 불렀다. 허공으로부터 날아온 목소리를 듣는다. 동쪽으로 가면 진리를 들려줄 스승을 만날 것이다. 그러나 동쪽으로 가라는 것이다. 좋다. 길을 떠나자. 그는 결심한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빈털터리다. 동쪽에서 만나는 스승이 가르쳐줄 진리는 돈에 대한 것이 아니니까, 돈을 초월한 것일 터이니, 빈손으로 가도 된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 스승의 이름이 담무갈보살이다. 그 스승에게 무슨 물건으로 공양을 올려야 할 것인가, 그는 목하(目下) 고민 중이다. 마침내 내린 그의 결단은 '심장이라도 팔자, 팔수라도 팔자'. 이것이 그의 신심이고, 그가 복을 짓는 방법이었다. 물론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의 결심에 감동한 제사천이 돕고, 어떤 장자의 딸이 도왔다.

우리 스스로 한번 물어보자. 혹시, 우리 스스로의 욕심을 채울 재물을 다 갈무리해 두고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신적인 것"이니까, 부처님께 물건으로 올리는 공양은 생각해도 된다고, 소홀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 과연 우리는 나를 위한 돈이 아니라, 부처님께 올릴 공양을 위하여 고민할 적이 있는가? 힘들어 하고 있는가?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그림 · 박구원

에서 둘째에 성이 자리하고 있고, 셋째에 돈이 자리하고 있다.(첫째는 의무, 넷째는 해탈이다.) 힌두교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가치를 다 구현하는 것, 성과 돈에 대한 인간욕망을 다 이룩하는 시기를 거주기(家住期, 가정생활기)라 했다. 다 알다시피, 우리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거주기를 건너뛰었다. 그것이 바로 출가이다. 그래서일까. 불교에서는 성과 돈이 다 터부(taboo)가 된다.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금기(禁忌)인 것이다. 이 중에 성은 스님들이 독신을 지키고 있기에 그렇다 치더라도, 돈은 왜 금기시하는 것일까? 왜 돈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것조차 천박한 것으로 치부되는 것일까?

그 대신, 불교는 아주 '정신'적인 것으로만 말해지는 감(感)이 없지 않다. 그렇다. 불교는 정신주의, 내지는 유심론인가? 유물론이라 주장하고 싶어서, 나는 이런 말을 시작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인간존재를 온전히 한 면머리로 파악하지 않고서 '정신적인 것'과 '물



## 주성원의 기초 교리 <48>

### 삼십칠보리분법(三十七菩提分法) ④ 오근(五根) · 오력(五力)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할 때, 혹은 사람을 고용해서 그 일을 시키고자 할 때에 흔히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건 자신, 혹은 피고용인이 그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자질문제일 것이다. 예컨대 유치원선생님을 고용하고자 할 경우, 고용주는 우선 지원자가 이 직업이 아이들을 교육하고 보살피는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는지를 먼저 볼 것이다. 그 다음 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지, 초심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지, 때순간 집중해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지, 상황에 맞게 적절한 판단력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할 것이다. 이러한 자질이야말로 훌륭한 유치원 선생님이 될 수 있는 필수조건이기 때문이다. 불교의 목표인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의 자질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질도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다. 깨닫기 위한 필수조건으로서의 이 자질을 원시불교에서는 오근(五根)과 오력(五力)으로 설명한다.

오근(五根)이란 신근(信根) · 정진근(精進根) · 염근(念根) · 정근(定根) · 해근(慧根)의 다섯 가지 수행능력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근이란 이 다섯 종류의 수행을 해 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눈[眼] · 귀[耳] · 코[鼻] · 혀[舌] · 몸[身]

의 감각능력인 안(眼)등의 오근과 구분해서 신(信)등의 오근이라고도 한다. 이 중에 신근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진리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신근이 오근의 첫 번째에 위치한 것은 불교의 모든 실천 수행도가 이 믿음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정진근 또한 신근의 믿음에 기반 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염근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 잊지 않는 것을 말하고 정근은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매사에 집중하는 것이다. 마지막의 해근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혜로서 통찰하는 것이다.

이 다섯 가지 자질은 말하자면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수행의 자질이자 필수적인 조건이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미혹한 세간에서 깨달음의 출세간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근을 처음 입문한 수학자의 수도법이라고도 한다.

오력(五力)은 오근이 다섯 가지 수행의 능력인 것에 비해 그 능력이 구체적으로 작용하는 다섯 가지 수행의 힘을 의미한다. 오근과 동일한 종류의 수행에 근 대신 력을 붙여서 오력이라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오력의 수행항목은 오근과 마찬가지로 신(信) · 정진(精進) · 염(念) · 정(定) · 혜(慧)의 다섯 가지이고 오근에서 더 나아가 수행도 라고도 할 수 있다. 오근과 오력의 관계는 원시경전에서 강의 상류와 하류로 비유된다. 방향에서 보면 상류와 하류는 강물의 도착지

인 바다와의 거리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만 강물의 흐름의 입장에서 보면 상류든 하류든 바다를 향해 흘러가는 동일한 강물일 뿐이다.

또한 오근이나 오력은 삼십칠보리분법(三十七菩提分法)의 다른 수행항목과 마찬가지로 서로 독립적인 수행도이다. 즉 다른 수행도와 관계없이 오근만으로도 부처님의 열반, 적어도 소승불교 수행의 최고 경지인 아라한과에는 다다를 수 있다. 삼십칠보리분법의 각 항목은 열반을 증득하기 위한 독립적인 수행도이지 단계적 수행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열반이라는 목표, 혹은 이상을 향한 지향능력이자 작용하는 힘인 오근 · 오력은 삼십칠보리분법의 다른 수행도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다. 오근 · 오력 중에 염과 해는 마음에 되새기고 집중하는 사념처로 나아가고 정진은 사정근이라고 하는 향상하고자 하는 노력의 방법론으로 나아가간다. 정은 향상하고자 하는 마음의 기반인 사신쪽으로 나아가간다.

오근 · 오력이라고 하는 자질로서의 능력과 작용으로서의 힘이 사념처(四念處) · 사신족(四神足) · 사정근(四正勤)이라고 하는 실천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그 목표가 계속적이든 종교적이든 기반자질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日 叢곡대 불교학박사 · 前 본지기자**

## 깨닫기 위한 필수 조건

# (사) 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안내

##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 학 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다.

## - 강원 교육 - 나란다삼장불교대학

◆ 학 장 : 성 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을 마련되어 있다.

## - 범패 · 작법무 - 불교예술평대 학

◆ 교 수 : 해 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평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 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 ◇통신대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 ◇모집학과 : 사미과, 사십과, 사교과, 대교과(각 6개월 과정)
- ◇원서교부 : 2013년 1월 15일부터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개 강 : 2013년 3월 5일 화요일
-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박사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님
-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 우수학인 장학금 지급

- ◇강의내용 : 사물다루는 법 등 기초의식교육
- ◇원서교부 : 2013년 1월 15일부터
- ◇수업시간 :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 6시
- ◇개 강 : 2013년 3월 8일 금요일

# 본원중 부설 불교의식대학 범음범패 제 8기 학인모집

- ▣ 교육기간 : 1년
- ▣ 입 교 식 : 2013년 3월 2일
- ▣ 수업일시 : 주 1회 매주 목요일 오후 2시~6시
- ▣ 교육내용 : 기초 도량석, 종성, 아침, 저녁, 예불, 거불, 복창계, 요잡바라, 도량계, 다게작법, 49재 및 천도재, 각단 불공 및 사찰의식 전과정.
- ▣ 입교자격 : 불교의식에 관심있는 스님과 행자 재가불자.
- ▣ 교육장소 : 서울 종로구 평창동 417-3 본원중 총무원
- ▣ 수 강 료 : 월 일십만원 (100,000)

접수문의 : 02)391-4376. 010-9993-6340

※ 시간은 본교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